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81-130
<https://doi.org/10.29212/mh.2022..125.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김민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국군의 창설
 3. 한국광복군 출신의 국군 참여
 4. 국군에서의 활동과 역할
 5. 맺음말

초 록 이 논문은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과 역할을 규명하고 정리한 것이다. 국군의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 참여인원과 참여자들의 특징, 국군에서의 활동과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을 전수 조사하였

다. 대상은 광복군 활동으로 서훈을 받은 자들로 삼았고, 운동계열은 다르지만 광복군 활동이 확인되는 자들을 추가하였다. 조사에는 각종 신문자료·회고록·증언집·자료집·현충원 전사자 기록·안장자 정보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공훈록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활용하였다. 가능한 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의 대략적인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의 창설과 성장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을 조사·발굴하고, 연구·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군은 그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광복군,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 국군, 창군, 국군의 정통성

(원고투고일 : 2022. 10. 5, 심사수정일 : 2022. 11. 8,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머리말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과 군사권을 이양받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16일 국방부 훈령 제1호를 발표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편성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국군 창설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다. 대체로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중국군·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경력을 중심으로 국군 창설에 참여하였고, 국군의 근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국군을 창설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 바로 광복군을 중심으로 국군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에서 창설된 광복군은 한말의병과 만주지역 독립군으로 이어져 온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잇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이었다. 그만큼 광복군 출신들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는 국군의 인적·정신적·역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군의 원류와 정통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할 수 있다.¹⁾ 이를 통해 국군의 원류는 항일독립운동사에서

1) 조동걸, 「韓國軍史의 源流意識」, 『軍史』 5, 1982 ; 삼군학회, 『民族獨立運動과 國軍의 脈絡』, 1989 ; 한용원, 「國軍의 光復軍 정통성 계승론」, 『平和』, 1989 ; 조항래, 「抗日獨立運動의 맥락에서 본 韓國軍의 正統性: 創軍의 배경과 正統性 계승을

찾아야 하고, 국군은 의병·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라는 점에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군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²⁾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은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국군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절하 하고 있으며³⁾, 국군의 날 기념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⁴⁾ 뿐만 아니라,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 인사들의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범석·김홍일·최용덕 등 국군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군이 창설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 창설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사령관을 비롯해 초대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광복군 출신들이 맡았다. 또 각 연대·여단·사단·군단의 지휘관을 역임하며 국군을 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1992 ; 김행복, 「光復軍이 國軍創設에 미친 影響」, 『군사논단』 20-21, 1999 ; 박성수, 「韓國光復軍의 正統性 問題」, 『三均主義研究論集』 21, 2000 ; 한시준, 「韓國光復軍 正統性的 國軍 계승 문제」, 『軍史』 43, 2001 ; 이강수, 「해방 직후 대한민국 國軍의 創軍과 그 역사성」, 『軍史』 88, 2013 ; 한용원, 『대한민국 국군 100년사』, 오름, 2014.

2)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울, 2021.

3) 군사편찬위원회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군사편찬위원회, 2012, 16~18쪽.

4)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353쪽.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군사간부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6·25전쟁 때에는 직접 전투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을 조사·분석할 것이다. 이들의 국군 참여 계기를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군의 창설과 성장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국군의 창설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국군을 창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국내외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광복군·중국군·일본군·만주군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군사경력자들이었다.

해방 직후 국내로 귀국한 군사경력자들은 자신들의 군사경력과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사설군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군사단체의 수는 무려 30여 개에 달했다.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계가 중심이 된 대한국군준비위원회, 일본군 출신들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

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67, 254쪽.

사위원회, 학병 출신들이 주축이 된 조선국군준비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⁶⁾

이들이 군사단체를 조직한 것에는 목적이 있었다. 국내의 혼란한 질서와 치안을 확보하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군대창설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군대창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만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임을 내세우며, 한국인들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은 사설군사단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설군사단체들이 미군정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정은 사설군사단체들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했고, 이들의 활동이 치안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설군사단체들을 해체·해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법령을 제정·공포하고 탄압에 나섰다.⁷⁾ 광복군 국내지대를 비롯한 국군준비대·학병동맹 등이 강제해산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대신할 방안으로 군대창설을 계획하였다.

미군정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군대창설 운동을 부정하고 자신들 주도로 군대창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10월 31일, 미군정 치안국장겸 헌병사령관 슈크(Lawrence E. Schick)의 ‘국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건의는 그 첫 걸음이었다. 이 건의는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를 거쳐 맥아더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다.⁸⁾ 그리고 자세한 검토과정을 거쳐

6)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26~29쪽.

7) 노영기, 「주한미군의 對韓 政세인식과 창군계획-사설군사단체에 대한 대응과 ‘뱀부 계획’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170~171쪽.

8)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84쪽.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통해 국방사령부(國防司司令部,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국방사령부는 미군정의 국방부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군대창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였다.⁹⁾

미군정의 군대창설 계획은 ‘뱀부계획(Bamboo Plan)’으로 구체화되었다. 뱀부계획은 국방사령부가 수립한 창군계획으로, 쉬크가 작성한 ‘국방군창설안’을 후임인 챔페니(Arthur S. Champeny)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구축한 것이다.¹⁰⁾ 그 핵심은 남한 각 도에서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일반 경찰과 같은 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를 2만 5천 명 규모로 편성하여 경찰을 지원하고 국가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에 있었다.¹¹⁾

이에 따라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태릉에 있는 옛 일본군 지원병 훈련소에서 제1연대가 창설된 것을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충남(대전)·전북(이리)·전남(광주)·경남(부산)·경북(대구)·충북(청주)·강원(춘천) 등에 경비대 창설이 이루어졌다.¹²⁾ 미군정에서는 이를 조선경찰예비대라고 하였지만, 한국 측에서는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불렀다.¹³⁾

남조선국방경비대라는 명칭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다시 개칭되었다. 소련 측 대표가 명칭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문제였다. 1946년 5월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

9)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355쪽.

10) 노영기, 「주한미군의 對韓 정세인식과 창군계획-사설군사단체에 대한 대응과 ‘뱀부계획’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179쪽.

11)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0쪽.

12)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71쪽.

13) 김중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206쪽.

참가한 소련 측 대표는 “미소 양국이 현재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국방’을 ‘국내치안’으로 변경하고, 국방사령부라는 명칭을 ‘국내경비부’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명칭을 바꾸었다.¹⁴⁾

미군정에서 국내경비부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측에서 사용한 명칭은 ‘통위부(統衛府)’였다. 통위부라는 명칭은 한말의 군제인 통위영(統衛營)·장위영(壯衛營)·통어영(統禦營) 가운데 중영(中營)이었던 통위영에서 따온 것이었다.¹⁵⁾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시도였다.

1946년 6월 광복군 출신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취임하였지만, 실질적인 군대창설 작업은 미군정이 주도해 나갔다. 지속적인 병력모집을 통해 각 지역별 연대 편성을 완료하였고, 6개 연대를 추가로 창설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경비대는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증편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¹⁶⁾ 군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 지휘체계에도 변화를 주어 기존의 총사령관 대리체제에서 총사령관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이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¹⁷⁾

이러한 미군정의 군대창설 작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8월

14)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86~187쪽.

15) 김중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212쪽.

16)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6~200쪽.

17)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7쪽.

24일에는 한미군사협정을 통해 군의 통수권 이양이 이루어졌다.¹⁸⁾ 이에 따라 8월 31일 통위부장 유동열은 국방부 장관 이범석과 ‘통위부 사무이양식’을 갖고, 모든 사무와 군의 지휘명령권을 이양하였다.¹⁹⁾ 이로써 통위부의 모든 업무와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었고, 국방부는 정부 조직으로서 군정을 장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행정권과 군사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면서 군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육군·해군으로 개칭되었고,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개칭되면서 군사간부 양성기관이었던 조선경비사관학교도 육군사관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²¹⁾ 이후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과 같은 해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48년 12월 15일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육군·해군으로 정식 편입되었다.²²⁾ 이로써 대한민국의 군대창설 작업은 완료되었고, 대한민국 군대는 ‘국군’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8) 『서울신문』, 1948년 8월 26일, 「한미군사협정 조인」.

19) 『경향신문』, 1948년 9월 2일, 「통위부, 국방부로 사무인계 완료」 ; 『자유신문』, 1948년 9월 2일, 「국방부 사무 이양」 ; 『조선일보』, 1948년 9월 2일, 「유동열 통위부장 이임사」 ; 『관보』 제3호, 1948년 9월 13일, 「행정이양(대통령령 제3호, 南朝鮮過渡政府 機構引受에 관한 건)」.

20) 「정부조직법」 제17조, 1948년 7월 17일.

21)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45쪽.

22) 김증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219쪽.

3. 한국광복군 출신의 국군 참여

1946년 6월 광복군 대원들이 인천항을 통해 한국하였다. 한국한 광복군 대원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국군 창설의 주력이 되고자 하였다. 미군정이 추진한 군대창설에 참여를 거부하였고, 광복군 중심의 국군이 조직되기를 바랐다.

광복군 출신들은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군대창설 초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미군정 주도의 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 입학도 거부하였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해 온 광복군 출신들은 미군정이 주도하는 군대창설이나 군사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²³⁾ 뿐만 아니라, 일본군·만주군 출신 등 친일경력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황도 광복군 출신들이 군대창설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였다. 이들은 전선에서 서로 총을 맞대고 생사를 겨루던 사이였다. 때문에 광복군 출신들은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주도하는 군대창설에 동참하지 않았다.²⁴⁾

이러한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그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광복군 출신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취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범석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²⁵⁾ 이때부터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3) 고정훈, 『(秘錄) 軍』(上), 東方書苑, 1967, 197쪽; 강영훈, 『철기이범석평전』, 삼육출판사, 1992, 116쪽.

24) 최덕신, 『남한 땅에 30년 : 민족분단의 비극 속에서』, 統一評論社, 1985, 19~27쪽.

25)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71쪽.

하지만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2022년 10월 현재까지 광복군 출신으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수는 579명이다. 이 가운데 국군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97명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운동 분류는 다르나 광복군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을 포함하면 102명에 이른다.²⁶⁾ 이는 전체의 1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출신학교·기수·성명·계급·주요경력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

<표 1> 국군에 참여한 한국광복군 출신자 명단²⁸⁾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1	정부 요인	-	-	유동열 (1879~ 1950)	-	- 대한제국군 참령 -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	- 통위부장

26) 명단에 추가 포함된 인원과 운동계열은 다음과 같다. 권준(중국방면), 김신(임시정부), 송면수(임시정부), 오광선(만주방면), 장홍(중국방면).

27) 한국광복군 출신 국군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공훈전자자료관·독립유공자공적조서’를 참고하였다. 운동계열 가운데 ‘광복군’으로 명시된 인물들과 운동계열은 다르지만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28) <표 1>은 필자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에 공개된 2022년 10월까지 ‘광복군’ 활동으로 서훈 받은 57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정밀하고 높은 신뢰도 구축을 위해 가능한 많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다. 각종 신문자료·회고록·증언집·자료집·현충원 전사자 기록·안장자 정보 등을 망라하였다. 공훈록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의 열람제한과 정보의 부족으로 더 많은 인원을 찾아내지 못함에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광복군과 국군의 명확한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 협조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2	정부 요인	-	-	이법석 (1900~ 1972)	-	- 중국 운남강무당 - 신흥무관학교 교관 - 북로군정서 연성대장 - 낙양군관학교 교관 - 한국광복군 참모장 - 한국광복군 제2지대장	- 초대 국방부장관
3	정부 요인	문관 신분 (임시 정부)	-	송면수 (1910~ 1950)	-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정훈조장 - OSS훈련	- 초대 정훈국장
4	육군	군사 영어학교	-	유해준 (1917~ 1986)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5기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전속 부관	- 육군보병학교장 - 육군대학총장 - 육군 제1군 사령부 부사령관
5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고시복 (1911~ 1953)	중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 중국군 - 군사특과단원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서울지구 병사구사령관 - 6·25전쟁 중 전사
6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박영일 (1924~ 2011)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1948년 8월 예편
7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송호성 (1889~ 1959)	소장	- 중국 邯鄲군사강습소 - 중국군 - 한국광복군 편련처장 및 제2지대장	- 제1여단장 - 제5사단장 - 조선경비대 사령관
8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이무중 (1925~ 1950)	소령	- 1944년 중국군 제5전구 소속 전시간부훈련단 정공간부훈련반 제2기 입교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제1사단 제11연대 제3대대장 - 6·25전쟁 중 전사
9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3기	박기성 (1905~ 1991)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1기 - 중일전쟁 참전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보참모부장	- 6·25전쟁 참전 - 제2사단 제5연대장 - 제101사단장 - 병사구사령관
10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3기	박승현 (1923~ 1982)	대령 26	- 학병 입대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부관	- 육군헌병학교장 군헌병부장 - 육군헌병차감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11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박시창 (1903~1986)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한국광복군 참모부 고급참모	- 제16연대장 - 제102여단장 - 제3군단 부군단장
12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전이호 (1922~2013)	대령	- 학병 징집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정보교육 담당	- 6·25전쟁 참전 - 제6사단 헌병부장 - 육군헌병학교장 - 군헌병부장 - 국방부 제3대 조사본부장
13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채원개 (1895~1974)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고급장교 복무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3연대 작전참모 - 제7연대장 - 제3여단장 - 제2사단장
14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최덕신 (1914~1977)	중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3사단장 - 제11사단장 - 제6대 육군사관학교장 - 외무부장관
15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최봉진 (1917~2003)	대령	- 한국광복군 제5지대 - 한국청년훈련반 - 인면전구공작대원	- 병참기지창장
16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한성도 (1909~1950)	중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토교대대장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대장	- 제3여단 연대장 - 제103여단 연대장 - 육군 중령 예편 - 복직 준비 중 6·25전쟁으로 실종
17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4기	강홍모 ²⁹⁾ (1922~2000)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1구대	- 6.25전쟁 참전 - 화살머리고지 전투 참전 - 제2사단 제32연대장

29) 현충원 안장자 정보에 의하면 강홍모는 2000년 6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18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4기	이건국 ³⁰⁾ (미상~1951)	대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사관학교 교관 - 육군사관학교 정보참모 - 6·25전쟁 참전 - 제2사단 부연대장 - 강원도 횡성전투에서 전사
19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김 소 (1917~2008)	대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제1사단 제11연대 제1대대장
20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김용관 (1926~1971)	소장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6·25전쟁 당시 대대장, 부연대장 참전 - 전라남도지사 취임 -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제38사단장 역임
21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문응국 (1921~1996)	대령	- 중국 중앙간부훈련단 제3기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부대장	- 육군대학 제12기 졸업 - 육군 제2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제12연대장, 제1사단 부사단장 - 제2대 문화재관리국장
22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영준 (1915~2000)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7기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장	- 초대 정훈감 - 국방대학원 졸업 - 육군소장, 한중문화협회 회장
23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용운 ³¹⁾ (1917~1960)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충무·회령무공훈장 수훈

30)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출생연도는 미상, 사망연도는 1950년으로 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장자 정보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건국은 경북 대구 출신으로 6·25전쟁 중인 1951년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김병형 원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24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재근 (1916~1997)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국방부 총무과장
25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종길 (1924~2008)	중령	- 한국광복군 토교대	- 제3·4·5대 민의원
26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유영중 (1921~1951)	대령	- 학병 입대 - 한국광복군 제9전구 지역공작대	- 1949년 용진군 국사봉 전투 참전
27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장철부 (1921~1950)	중령	- 학병 입대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육군사관학교 교관 - 독립기갑연대 기병대대장 - 6·25전쟁 중 전사
28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차약도 (1927~1950)	-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서울지구 헌병대장 - 6·25전쟁 중 전사
29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최규련 (1915~1999)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30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최세득 (1921~1998)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이명 : 왕세일
31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김국주 (1924~2021)	소장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소장 예편
32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김관오 (1901~1965)	준장	- 운남강무당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21연대장
33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김명천 (1916~1999)	중령	- 중국 포병장교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6·25전쟁 참전 - 화랑무궁훈장 - 육군 중령 예편 - 대한중석·광복회·재향군인회 활동
34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박영섭 (1922~1962)	준장	- 한국청년훈련반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 OSS훈련	- 제21연대 제2대대장

저·김홍준 편저, 『끝없이 가는 길』, 문운당, 2020, 186~190쪽).

31)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35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박영진 (1921~ 1950)	대위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 6·25전쟁 중 전사
36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윤태현 (1919~ 1970)	소령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 OSS훈련	- 제21연대 제1대대장 - 6·25전쟁 중 즉결 처분
37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이신성 (1922~ 2016)	중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대한독립투쟁사 편찬위원
38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장철 (1922~ 2008)	대령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육군 제39사단 참모장 - 육군 조달차감 - 제15대 광복회장
39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태윤기 (1918~ 2012)	대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육군 법무대령 - 변호사
40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황영식 (1913~ 1969)	중령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 중령 예편
41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황의선 (1924~ 2018)	대령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 경리주임	- 6·25전쟁 참전 - 육군보병학교 교관 - 육군 제1·2훈련소 연대장 - 육군 제3사단 제22연대장 - 육군 제35사단 참모장 - 국군 군수검열단장
42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구자민 (1924~ 2001)	중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군수기지사령부 시설대장
43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김병학 (1922~ 1983)	중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정보장교 - 육군 중령 예편
44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김영오 (1920~ 1993)	중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중령 예편 - 한국전력 상무 - 한국석유공업 고문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45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김영일 (1925~ 2011)	소장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6·25전쟁 참전 - 십자성부대 사령관 - 육군대학 총장
46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노복선 (1912~ 1997)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군사특파단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총무조장	- 육군 연대장
47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승영호 ³²⁾ (1920~ 1988)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육군 대령 예편 - 제9대 제주지방방무청장
48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안춘생 (1912~ 2011)	중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한국광복군 제2지대 구대장 - 한국광복군 주남경 지대장	- 제9대 육군사관학교장 - 육군 제8사단장, 국방부 차관보
49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이금렬 (1926~ 2003)	대령	- 한국광복군 초모활동	- 제3사단 부사단장 - 육군 대령 예편
50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이준식 (1900~ 1966)	중장	- 1921년 운남강무당 졸업 - 정의부 군사위원장 - 1930년 중국군 고급장교 - 한국광복군 군사특파단 주임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8대 육군사관학교장 - 제7여단장 - 제7사단장
51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이홍근 (1928~ 2009)	준장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3분대	- 6·25전쟁 참전 - 제17연대 제2대대 소대장 - 제28사단 제81연대장 - 제32사단 부사단장
52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장호강 (1916~ 2009)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 중국 제24집단군 사령부 및 제29군 사령부 정보장교 - 한국광복군 제3지대 부관주임	- 제3사단장 전속 부관 - 제3사단 정보처 보좌관 - 육군본부 사제과장

32)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사망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88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경향신문』, 1988년 5월 4일, 「독립유공자 承永祐씨」).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53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전재덕 (1924~ 2016)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서울시부시장 - 중앙정보부 제2차장 - 駐핀란드대사
54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함세만 (1922~ 2012)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대대장 - 병기 기지장
55	육군	육군 사관학교 (중국방면)	특임	권준 (1895~ 1959)	소장	- 신흥무관학교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한국광복군 漢口잠편지대장	- 초대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 제103사단장 - 초대 제50사단장
56	육군	육군 사관학교	특임	김동수 (1916~ 1982)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중국군 제25사단 복무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부대장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8사단 제16연대장 - 제1기갑연대장 - 제27사단장
57	육군	육군 사관학교	특임	김홍일 (1898~ 1980)	중장	- 귀주강무당 졸업 - 중국군 19집단군 참모처장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	- 제7대 육군사관학교장 - 시흥지구전투사령관 - 초대 제1군단장
58	육군	육군 사관학교 (만주방면)	특임	오광선 (1896~ 1967)	준장	- 중국 보정군관학교 - 신흥무관학교 - 한국독립군 - 낙양군관학교 교관 -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장	- 兵事區司書官 - 전주지구위수사령관
59	육군	육군 사관학교 (중국방면)	특임	장홍 (1903~ 1983)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헌병사령부 - 한국광복군 漢口잠편지대부지대장	- 초대 헌병사령관 - 제6사단장
60	육군	육군 종합학교	-	김영관 (1924~ 생존)	대위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강남분대	- 6·25전쟁 중 입대·참전 - 공병장교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61	육군	미상	-	김명탁 ³³⁾ (1916~1950)	중령	- 한국청년훈련반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 6·25전쟁 참전 - 제6사단 - 6·25전쟁 중 전사
62	육군	미상	-	김승조 (1919~2013)	대위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대위 예편
63	육군	미상	-	김영남 (1922~1950)	소령	- 학병 징집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헌병학교 졸업 - 6·25전쟁 참전 - 안동전투에서 전사
64	육군	미상	-	김은석 (1919~2011)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장교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낙동강 방어전투 참전
65	육군	미상	-	김일환 ³⁴⁾ (1923~1950)	소령	- 중국 철도경호대 졸업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평남 덕천전투에서 전사
66	육군	미상	-	김중섭 (1916~1985)	중령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육군 중령 예편
67	육군	미상	-	김현 (1914~1950)	대위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제8사단 - 6·25전쟁 참전 - 6·25전쟁에서 전사
68	육군	미상	-	나태섭 (1901~1989)	대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주계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6·25전쟁 참전
69	육군	미상	-	문상명 (1922~1992)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중 입대·참전 - 육군 제2보병연대장 - 육군대학 참모장

33) 현충원 안장자 정보와 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에는 1926년 7월 21일 출생, 1950년 10월 20일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

34) 국가보훈처 공훈록·현충원 안장자 정보·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훈전자자료관에는 생몰년월일이 1923~1950년 11월 31일로 되어 있고, 평남 덕천전투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충원 안장자 정보와 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에는 1950년 11월 22일 전사한 제8사단 제16연대 소속의 소령 김일환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동일인물로 판단된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70	육군	미상	-	박금룡 (1925~ 2019)	-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헌병
71	육군	미상	-	박동환 (미상~ 1948)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72	육군	미상	-	박석권 (1925~ 1990)	중령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6·25전쟁 참전 - 제8사단 제10연대 제1대대 중대장 - 6·25전쟁 중 강릉전투에서 부상 - 육군 중령 예편 - 제13대 평창군수, 횡성군수, 화천군수 역임
73	육군	미상	-	박제화 (1921~ 1950)	대위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제1분대장 - OSS훈련	- 제1사단 제13연대 중대장 - 6·25전쟁 중 전사
74	육군	미상	-	박효근 (1923~ 2009)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경북대 학생군사교육단장(1969) - 대한석탄공사(1975)
75	육군	미상	-	백창섭 (1916~ 2004)	-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국내특과원	- 육군 제1사단 입대(1950년 11월) - 6·25전쟁 참전 - 평양전투 참전
76	육군	미상	-	선우기 (1921~ 1949)	중위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지리산 토벌 작전 중 전사(1949)
77	육군	미상	-	오성행 (1921~ 2000)	대령	- 한국청년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부관	- 6·25전쟁 참전
78	육군	미상	-	이득우 (1925~ 2014)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3분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헌병 - 미국 이민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79	육군	미상	-	이명 (1917~1950)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6·25전쟁 중 전사
80	육군	미상	-	이영길 (1912~1973)	대령	- 학병 징집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	- 6·25전쟁 참전 - 제26사단 제73연대장 - 육군 대령 예편
81	육군	미상	-	이종렬 (1924~2019)	-	- 한국광복군 제9전구공작대	- 6·25전쟁 중 입대 - 제주도 포로수용소와 미군에서 군생활
82	육군	미상	-	이진영 (1907~1951)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6·25전쟁 중 전사(화순지구)
83	육군	미상	-	이찬영 (1924~1983)	대령	-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	- 육군 헌병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국방부 제7대 조사본부장
84	육군	미상	-	이창도 (1926~2010)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장
85	육군	미상	-	장덕기 (1921~1996)	대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 OSS훈련	- 6·25전쟁 참전 - 육군포병장교 - 아르헨티나 이민
86	육군	미상	-	정희섭 (1920~1987)	준장	- 개봉 하남의원 근무 -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 활동 협조	- 제2대 국군의무사령관 - 보건사회부장관
87	육군	미상	-	차성훈 (1926~1951)	소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6·25전쟁 중 전사
88	육군	미상	-	최덕휴 (1922~1998)	소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중 입대 - 육군본부 및 국방부 복무 - 화가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89	육군	미상	-	최장학 ³⁵⁾ (1909~1987)	대위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육군 대위 예편
90	육군	미상	-	한필동 (1921~1993)	대령	- 한국광복군 토교대	- 육군 제1연대 헌병대장
91	육군	미상	-	허영일 (1921~1950)	-	- 한국청년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제2분대장 - OSS훈련	- 6·25전쟁 중 전사
92	육군	미상	-	홍구표 (1923~2000)	대령	- 학병 입대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6·25전쟁 참전 - 6·25전쟁 당시 한국은행 금괴 수송열차 호송책임(육군 소령)
93	육군	미상	-	홍재원 (1917~2015)	중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 OSS훈련	- 6·25전쟁 참전 - 육군 중령 예편
94	육군	미상	-	황하규 (1921~1950)	대위	-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1구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제3사단 - 경북 영덕전투에서 전사
95	육군	미상	-	최시화 ³⁶⁾ (1921~미상)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중 전사
96	육군	부사관	-	박찬규 (1928~2019)	하사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백마고지전투 공훈
97	육군	부사관	-	장세국 (1928~2012)	상사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이등병 입대 - 육군 상사 전역(1951)

35) 이명은 陳嘉明이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6, 1975, 371쪽).

36) 최시화의 아들 최광삼과의 통화를 통해 최시화가 해방 이후 국군에 참여하였고, 6·25전쟁 중 전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사망연도·계급·참여기관·활동 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상’으로 표시해둬를 밝혀둔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98	육군	병	-	이영수 (1924~ 2022)	대위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이등병 입대(1952) - 6·25전쟁 참전 (제9사단 제29연대) - 대위 전역
99	해군	미상	-	민영구 (1909~ 1976)	소장	- 한국광복군진선청년공작대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해군본부 함정국장 -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 - 제9대 해군사관학교장
100	공군	미상	-	이윤철 (1925~ 2017)	소령	- 한국광복군진선청년공작대	- 6·25전쟁 참전
101	공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	최용덕 (1898~ 1969)	중장	- 중국 보정항공학교 - 중국 남창공군기지사령관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초대 국방부차관 - 제3대 공군사관학교장 - 제2대 공군참모총장
102	공군(임시정부)		-	김신 (1922~ 2016)	중장	- 중국 공군사관학교 - 미국 텍사스 랜돌프 비행학교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원	- 6·25전쟁 참전 - 제6대 공군참모총장

※ 육군사관학교, 『陸軍士官學校 第五期 卒業記念 寫眞帖』, 육군사관학교, 1948(독립기념관 소장); 고정훈, 『(祕錄) 軍』(上), 東方書苑, 1967; 김홍일, 『대륙의 분노』, 文潮社, 1972;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6, 1975;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이응준, 『回顧90年: 1890~1981(이응준 자서전)』, 산운기념사업회, 1982;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최덕신, 『남한땅에 30년: 민족분단의 비극 속에서』, 統一評論社, 1985; 이현희, 『韓國獨立運動證言資料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陸士第8期史編纂委員會, 『老兵들의 證言 - 陸士八期史』, 陸軍士官學校 第八期生會, 1992;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II, 2002; 육군사관학교 제3기사 편찬위원회, 『화랑의 꿈 선구의 길 - 陸軍士官學校 第3期史』, 육군사관학교 제3기동기회, 2005; 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황의선, 『황의선 회고록: 돌아보는 激變의 80년 歲月』, 신생커뮤니케이션, 2008;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

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군사편찬위원회, 2012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한명해, 『한국광복군경위대대장 한성도』, 2018 ;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김병형 원저, 김홍준 편저, 『끝없이 가는 길 : 마지막 기병대장 장철부 중령의 생애』, 문운당, 2020 ; 『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겨레신문』·『연합뉴스』·『오마이뉴스』·『주간경향』·『뉴스시스』·『고양신문』, 가족 증언.

※※ 기존에 광복군 출신으로 알려진 김응조·조개옥·전성호·이성가·소재현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응조·이성가·소재현은 독립운동 활동으로 서훈을 받지 않았으며 광복군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개옥(중국방면)과 전성호(만주방면)는 독립유공자로 서훈은 받았으나 해방 이전 광복군 활동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입대한 인물들은 모두 102명이다. 이들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광복군 출신들은 육·해·공군에 모두 참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방이전 각자의 군사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곳은 육군이다. 전체 102명 가운데 95명이 육군에 입대하였다. 육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은 대부분 조선경비사관학교와 그 후신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특히 제2기부터 제8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광복군 출신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임명된 것과 이범석이 국방부 장관에 부임한 것에 연유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1946년 6월,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취임하면서 부터이다. 유동열은 당시 군 경력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각종 군사경력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190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04년부터 대한제국군의 장교로 활동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

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펼쳤고, 194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자, 통수부의 막료 겸 참모총장에 임명되어 최고 통수권을 행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³⁷⁾ 대한제국군·독립군·광복군으로 활동하며 한국군의 정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유동열은 국군 창설에 친일경력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광복군 출신과 같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자들이 국군 창설에 참여하여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야만 국군 내부의 친일세력화를 저지할 수 있고, 그들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⁸⁾

유동열의 이러한 의중은 조선경비대사령관 인사에 관철되었다.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오르게 되면서 조선경비대사령관에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이 임명된 것이다. 송호성은 중국 한단(邯鄲) 군사강습소를 졸업하고 중국군으로 활동하다가 광복군 제2지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³⁹⁾ 그가 전국 8개 도에 1개 연대씩 편성된 군대인 조선경비대의 총지휘를 맡게 되었다.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과 송호성이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사령관에 부임하자, 광복군 출신들이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9월 23일에 선발한 제2기에 고시복·박영일·이무중이 입교한 것을 시작으로, 1947년 1월 13일에 선발한 제3기에 박기성·박승현·박시창·전이호·채원개·최덕신·최봉진·한성도가 입교한 것이다. 제4기에는 강홍모·이건국이 입학하였고, 1947년 10월 1일 입학한 제5기에는 김소·문웅국·박영준·박용운·박재곤·박종길·유영중·장철부·차약도·최규

37) 박종연, 「春郊 柳東說(1879-1950)의 생애와 독립운동」,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24쪽.

38) 최덕신, 『남한 땅에 30년 : 민족분단의 비극 속에서』, 統一評論社, 1985, 28쪽.

39)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243쪽.

련·최세득 등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자제 또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시복·박시창·최덕신·박영준 등이 그들이다. 고시복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봉준의 사위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정숙의 남편이었다. 박시창은 민족언론인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의 자제이고, 최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 활동한 최동오의 아들이자, 광복군 참모총장과 해방 후 통위부장을 지낸 유동열의 사위였다. 마지막으로 박영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활동을 전담한 박찬익의 아들로, 부인은 광복군에서 함께 활동했던 신순호이며, 장인 신건식과 장모 오건해 역시 독립운동가였다. 고시복·박시창·최덕신·박영준은 모두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과 광복군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졌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범석과 최용덕이 국방부장관과 차관에 임명되면서 광복군 출신의 국군 참여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7기에 김관오·김국주·김명천·박영섭·박영진·윤태현·이신성·태윤기·황영식·황의선 등이 입학하였고, 제8기에는 구자민·김병학·김영오·김영일·노복선·송영호·안춘생·이금렬·이준식·이홍근·장호강·전재덕·함세만 등이 입교하였다.

제8기 가운데는 정규모집과 별도로 특별입관 방식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도 있었다. 권준·김홍일·장홍·오광선·김동수 등이 그런 경우이다. 이들은 해방 이전 군사경력을 인정받아 특별입관 형식으로 국군에 참여하였다.⁴⁰⁾ 권준·김홍일·장홍은 중

40)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0~61쪽.

국군 고급장교 출신으로,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항일전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특히 김홍일은 중일전쟁 당시 직접 지휘관으로 참전하여 상고회전(上高會戰)·장사회전(長沙會戰)과 같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중국군 소장에 진급하기도 했다.⁴¹⁾ 그리고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한국독립군과 낙양군관학교 교관으로 활약하였고⁴²⁾, 김동수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광복군 경위대 대장을 지냈다.⁴³⁾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도 참여하였다. 해군의 민영구, 공군의 최용덕·김신·이윤철이 그 예이다. 민영구는 독립운동가 민제호(閔濟鎬)의 장남으로, 부인 이국영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⁴⁴⁾ 1929년 상해 만국항해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상선의 항해사로 근무하다가 광복군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중일전쟁 당시 한구(漢口)와 남경(南京) 간 항로를 취항하면서 중국 국민당군의 군수품과 장병 수송에 참가하였으며, 1937년 12월에는 제2차 양자강 봉쇄작전에 직접 선단을 이끌고 참전하여 일본 군함의 통과를 저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⁵⁾ 공군의 최용덕은 단기서(段祺瑞) 군벌이 설립한 남원(南苑)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보정(保定)항공학교에 들어가 중국 공군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남창(南昌)공군기지사령관을 지냈다.⁴⁶⁾ 김신은

41) 김종문,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185~186쪽.

42) 김명섭,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군사』 1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46~62쪽.

43)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36~68~71쪽.

4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346~347쪽.

45) 김재순, 「愛國志士 閔泳玖 船長の 中國商船에서의 活躍」, 『해양평론』, 2006, 186~187쪽.

46) 김기동·강창부·이지원, 「최용덕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군사』 95,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둘째 아들로, 1944년 곤명(昆明)의 공군군관학교와 미국 랜돌프(Randolph)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 공군으로 활동한 인물이다.⁴⁷⁾ 이윤철은 독립운동가 이광(李光)의 아들로, 민영구의 처남이다. 1945년 중국공군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천성 신진 B-29기지에서 지원 업무를 맡다가 1950년 4월 국내로 들어와 공군에 입대하였다.⁴⁸⁾

둘째, 장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관과 사병은 2명, 1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군사 활동에 정통한 정식 군관학교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연유한다. 광복군 출신 국군 참여자 가운데 정식 군관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거나 한광반·한청반 수료 후 광복군 장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은 50명에 달한다.⁴⁹⁾ 참여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과거에 장교로서 경험을 가진 자들로, 해방 이후 국군에서도 그 경력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국군의 근간을 이룰 장교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국군 참여는 군사간부 수급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주는 분명한 요소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433~434쪽.

47)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77~102쪽.

48)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381~467쪽.

49) 한국과 중국의 군관학교 졸업자 35명과 한청반·한광반 수료자 19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에는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한청반·한광반을 수료한 김명탁·김일환·박영섭·박재화·이명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군 제5전구 소속 전시간 부훈련단 정공간부훈련반 출신의 이무중을 포함시키면 총 인원은 50명이 된다.

<표 2>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의 계급별 분류

구분	계급	인원	비고
육군	장교	91	95
	부사관	2	
	병	1	
	미상	1	
해군	장교	1	1
	부사관	0	
	병	0	
공군	장교	3	3
	부사관	0	
	병	0	
총원			99

※ '정부요인'으로 분류한 유동열·이범석·송면수 제외

셋째, 다양한 나이대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였다. 국군에 참여할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20대 56명, 30대 27명, 40대 11명, 50대 5명, 60대 2명, 미상 1명이다. 이 가운데 20~30대가 83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방 당시 20~30대의 젊은 광복군들이 자신들의 광복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에 적극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40~60대는 고급군사경력자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김홍일·송호성·오광선·이준식·채원개 등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군의 중견간부로 임명되어 초급 간부들을 이끌고, 국군의 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넷째,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 중에는 독립군·중국군·광복군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실전 전투경험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준식과 오

광선은 1930년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였고⁵⁰⁾, 고시복·김홍일·박시창·안춘생·최덕신·최용덕 등은 중국군으로서 중일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던 경력을 가졌다.⁵¹⁾ 문응국·박영진·최봉진은 인면전구공작대원으로 파견되어 임팔 전투에서 광복군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다.⁵²⁾ 이들의 실전 경험은 국군의 전투역량 발전에 기대되는 부분이었다.

다섯째, 광복군 창설을 함께했던 인물들이 국군 태동과 함께 하였다. 나태섭·이준식·노복선·안춘생·유해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특과단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특과단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군사거점을 확보하고,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선전·초모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들은 광복군 창설의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했고, 광복군의 활동기반을 개척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⁵³⁾ 이러한 이들의 경험과 역량은 초창기 국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50) 정호영, 「영덕지구전투에서 벼랑 끝 조국을 구하다 :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의 국군지휘관 이준식 장군」, 『국방저널』 통권 제572호, 국방홍보원, 2021, 14쪽 ; 김명섭,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軍史』 121, 2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6-64쪽.

51) 김홍일, 『대륙의 분노』, 文潮社, 1972, 306~346쪽 ; 오효진, 「영원한 光復軍 安椿生」, 『月刊朝鮮』 7·8, 조선일보사, 1986, 233~235쪽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185쪽 ; 김기동·강창부·이지원, 「최용덕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군사』 95, 2015, 442~443쪽.

52) 박민영, 「한국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53쪽.

53)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74~76쪽.

4. 국군에서의 활동과 역할

가. 초대 국방부 장·차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되자,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적극 참여하였다.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국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육군·해군·공군에 참여하여 국군이 뿌리를 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차관을 비롯한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 주요 부대 지휘관에 임명되어 국군의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복군 출신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과 차관으로 활동하였다. 이범석과 최용덕이 그들이다. 국방부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직책이다.⁵⁴⁾ 또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⁵⁵⁾ 즉, 국방과 군사에 정통하고 역량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는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핵심 요직에 광복군 출신을 임명했다는 것은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광복군 출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이며, 해방 이후 혼란한 군 출신자들을 통합하고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과 차관에 임명된 이범석과 최용덕은 초창기 국군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54) 정부조직법 제33조 및 국군조직법 제8조.

55) 정부조직법 제7조.

1948년 8월 31일 통위부장 유동열로부터 군사권을 이양 받아 ‘대한민국 국군’의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국군이 법적인 지위와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국방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서 국군조직법을 공포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하였고⁵⁶⁾, 1948년 12월 7일에는 국방부 직제령을 공포하여 국방부 본부와 육·해군 본부의 직제와 지휘체계를 마련하였다.⁵⁷⁾ 체제가 정비되자, 군사력 강화에도 힘썼다. 육군수색학교·호림부대·유격대대 등을 창설하여 병력을 확보하였고, 전투력 향상을 위해 미국 측에 각종 무기와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였다.⁵⁸⁾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정훈국을 설치하여 국군의 군인정신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였다.⁵⁹⁾

국방부차관 최용덕은 장관 이범석을 보좌하며 국군의 통합과 조직 체계 마련에 힘썼다. 특히 국군 조직에 있어 공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데 공헌한 점이 주목된다. 국군 창설 당시 공군은 육군과 해군에 비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았고 인적·물적 자원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⁶⁰⁾ 따라서 독립 조직이 아닌, 육군 항공부대 소속으로 편제되었다.⁶¹⁾

5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48쪽.

57) 백기인,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60쪽.

58) 백기인, 「건국 직후(1948-1950)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 『군사』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74쪽 ; 황민호, 『철기 이범석 평전』, 선인, 2021, 174~175쪽.

59)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政訓의 도입과 성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6쪽.

60) 고정훈, 『(祕錄) 軍』(上), 東方書苑, 1967, 52쪽 ;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을지문화사, 1993, 81~87·92·97쪽 ; 강창부·김기동·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64, 2016, 240쪽.

61) 김경록, 「6.25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군사』 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75~78쪽.

최용덕은 항공전력 강화와 공군의 독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48년 11월 10일 열린 국회 제100차 회의에서 공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⁶²⁾, 그 결과 1948년 11월 30일 제정된 「국군조직법」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부칙이 반영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⁶³⁾ 또한 1949년 1월 14일에는 육군 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항공부대가 독자적인 공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재양성의 토대를 닦았다.⁶⁴⁾

나.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되어 군사간부 육성의 책임을 담당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송호성·최덕신·김홍일·이준식·안춘생을 비롯해서 해군사관학교 교장의 민영구, 공군사관학교 교장의 최용덕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초창기 각 군 사관학교의 교장을 맡아 국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사관학교가 국군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을 맡아 군사간부 양성에 힘썼다. 특히 제6대부터 제9대까지 최덕신·김홍일·이준식·안춘생이 교장을 역임한 것이 주목된다. 광복군 출신 가운데 처음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된 인물은 송호성이다. 송호성은 조선경비사관학교 시절인 1947년 5월 1일부터 1947년 10월 11일까지 제4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고급군사경력자였던 송호성

62)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제1회 속기록』(제100호, 1948년 11월 10일), 국회사무처, 860~861쪽.

63) 「國軍組織에 關한 法令」(법률 제9호, 1948년 11월 30일).

64)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43~44쪽.

은 통위부장 유동열의 배려로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로 특별입교 하였고, 교육을 수료한 후 다른 교육생들보다 먼저 특별입관 형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⁶⁵⁾ 이후 1946년 12월 23일 제2대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47년 5월 1일부터는 조선경비사관학교 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⁶⁶⁾

송호성은 교장으로서 직접 생도의 선발과 입관을 책임졌다. 1947년 5월 5일 통위부 특명에 의하여 중령 정일권·박동균, 소령 김종갑·최홍희, 대위 김현수·김완용·김형일·오일균 등과 함께 제4기생 입학적격자 심사위원회 임명되어 입학시험을 주관하였다. 최종면접에도 참여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에 힘썼다. 재임기간 중에는 생도들에게 「조선혼」을 강조하며 민족정신 함양에 노력을 기울였다.⁶⁷⁾

광복군 출신으로 두 번째로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된 인물은 최덕신이다. 최덕신은 1948년 7월 29일 조선경비사관학교 제6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최덕신의 사관학교 교장 임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광복군 출신을 교장에 임명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최덕신 이후 광복군 출신의 김홍일·이준식·안춘생이 연이어 교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국군의 정통성은 광복군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국군이 광복군의 후예라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⁶⁸⁾ 최덕신은 취임하여 ‘창조성·적극성·자율성’을 교육의 3대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생도들의 교육을 위

65)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90쪽.

66)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66쪽.

67)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66~67쪽.

68)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274~275쪽.

해 힘썼다.⁶⁹⁾ 그는 생도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깨끗한 군인’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⁷⁰⁾ 또한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면서 ‘육군사관학교’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첫 교장이 되었다.

1949년 1월 15일에는 김홍일이 제7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부임하였다. 교장 김홍일은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생도들의 자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육군사관학교에는 교훈이 없었다. 교장 김홍일은 ‘충국애민(忠國愛民)’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국방훈련으로 국토통일’, ‘군기확립으로 사상통일’, ‘청렴결백으로 사병(士兵)제일’이라는 3대 교육방침을 제정하여 생도 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충(忠)·용(勇)’을 교훈으로 제정하였다.⁷¹⁾ 또한 다양한 교육과목을 신설하여 역량 있는 장교 육성에 힘썼다. 국사·영어·일반학·지휘법·행정학을 비롯하여 축구·농구·권투 등 체육과목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강한 체력과 교양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고자 한 교장 김홍일의 의중이 담긴 조치였다.⁷²⁾ 특히 일본 군대식 교육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민족정신을 지향하고자 매주 월요일 첫 시간마다 교장 김홍일이 직접 실시한 정신훈화교육은 생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⁷³⁾

69)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79~80쪽.

70) 권태룡, 「北으로 간 反共투사」, 『월간중앙』 298, 2000, 118쪽.

71)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88~89쪽.

72) 김홍일은 육군사관학교의 2년제 교육과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한다. 중국군과 광복군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경륜을 가진 김홍일은 기존의 45일~6개월의 단기 과정으로는 역량 있는 군사간부 양성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과목을 심도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34쪽).

73)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231쪽 ; 陸士第8期史編纂委員會, 『老兵

1950년 6월 10일 제7대 교장 김홍일이 육군참모학교장으로 가게 되면서 제8대 교장으로 광복군 출신의 이준식이 취임하였다. 이준식의 육군사관학교 교장 재임 기간은 길지 않다. 부임한 지 15일 만에 6·25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비록 28일의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이준식은 생도들을 이끌고 직접 참전하여 교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생도 부대를 편성하여 불암산과 육군사관학교 부근에서 방어 작전을 전개하였고, 수원 일대의 방어선 구축에 힘을 보탰다.⁷⁴⁾ 이후 1950년 7월 8일 육군사관학교가 임시휴교될 때까지 생도들을 이끌며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1950년 7월 8일 임시휴교 된 육군사관학교는 1951년 10월 30일 경남 진해에서 재개교되었다. 전쟁에서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면서 정예 장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⁷⁵⁾ 1951년 가을경부터 정부와 육군의 관계자들은 4년제 육군사관학교 재건에 논의를 지속하였고, 마침내 1951년 10월 30일 ‘국본 일반명령(육) 제 163호’에 의해 진해에서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하게 되었다.⁷⁶⁾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로 재개교하게 되면서 제9대 교장에 안춘생이 부임하였다. 교장 안춘생은 6·25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육군사관학교의 제도 정비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힘썼

들의 證言 - 陸士八期史』, 陸軍士官學校 第八期生會, 1992, 37~40쪽;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04쪽.

74)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18~121쪽.

75)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35쪽.

76)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38쪽.

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 USMA)의 제도와 내규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했고, 교훈·교과·학교의 사명 등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특히 교훈 ‘지(智)·인(仁)·용(勇)’의 제정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독립운동을 통해 얻은 신념과 염원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⁷⁷⁾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교장으로서 군사간부 육성을 책임졌다. 민영구가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최용덕이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것이다. 민영구는 1959년 4월 1일부터 1960년 7월 17일까지 해군사관학교의 제9대 교장을 역임하였다.⁷⁸⁾ 그는 교육제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관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현실에 맞게 기본학기 제도를 변경·시행하였으며, 생리학·이공학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생도들의 역량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다.⁷⁹⁾

초대 국방부차관을 역임했던 최용덕은 1950년 5월 1일 제3대 공군사관학교 교장에 부임하였다. 교장 최용덕은 부임 후 발발한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군사관학교를 끝까지 지켜냈다. 생도들과 함께 공군사관학교를 방어하고, 김포지구 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김포지역 경계 작전에 앞장섰다.⁸⁰⁾ 전쟁 양상에 따라 공군사관학교가 수원-진해-서울-제주도 등으로 이동할 때에도 생도들을 이끌며 사관학교 수성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사관학교의 체제 정비와 확장에 주력한 점이 주목된다. 학교기구를 확장·개편하여 사관학교로서의 면모를

77)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40~141쪽.

78)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578쪽.

79)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215쪽.

80)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52~54쪽.

갖추고, 생도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적 충실을 도모하였다.⁸¹⁾ 또한 공군사관학교 교가를 비롯하여 ‘공군가’, ‘비행행진곡’ 등 여러 편의 공군 군가를 작사했으며,⁸²⁾ ‘전문용어제정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당시 무질서하게 사용되던 군대용어와 항공용어의 통일작업에도 힘썼다.⁸³⁾

다. 주요 부대의 지휘관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 창설 이후 주요 부대의 지휘관에 중용되었다. 국군은 1947년 후반부터 꾸준한 증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대가 증설되고, 여단과 사단이 창설되었다. 6·25전쟁 중에는 새롭게 군단이 편성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군의 부대 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광복군 출신들은 주요 부대의 지휘관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각 부대의 체제를 정비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육군은 1947년 12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외적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조선경비대 시절 4개 여단이었던 부대 규모가 6개 여단으로 확대·편성된 것이다.⁸⁴⁾ 여단이 창설되면서 여단장들도 새롭게 임명되었다. 그 중에는 광복군 출신들도 있었다. 제1여단장에 송호성, 제2여단장에 채원개, 제3여단장에 최덕신, 제7여단장에 이준식이 지휘관에 임명된 것이다.⁸⁵⁾

이러한 경향은 사단 창설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육군은 총 6개 여단과 20개 연대의 편제를 갖추자,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81)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54~109쪽.

82)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108쪽.

83)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96쪽.

84)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268~269쪽.

85)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277쪽.

1949년 5월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하고, 제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하였다.⁸⁶⁾ 이에 따라 제3사단장에 최덕신, 제5사단장에 송호성, 제7사단장에 이준식, 수도경비사령관에 권준이 임명되었다.⁸⁷⁾ 특히 신설된 수도경비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에 임명된 권준은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에서 육·해·공군 사열식의 총 지휘를 맡아 5,700여 명의 장병을 이끌기도 하였다.⁸⁸⁾ 이와 함께 8개 사단 산하 10개 연대 가운데 2개 연대의 연대장에 광복군 출신 박시창(제16연대)과 유해준(제25연대)이 임명되었고⁸⁹⁾, 6·25전쟁 중인 1950년 3개 군단 창설 당시 제1군단장에 김홍일을 임명하여 광복군 출신을 핵심 지휘관으로 삼았다.⁹⁰⁾

광복군 출신들은 공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으로도 활약하였다. 최용덕과 김신이 제2대·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것이다. 이들은 공군의 총 책임자로서 초창기 대한민국 공군의 토대 구축과 항공력 발전에 기여하였다. 1952년 12월 제2대 공군참모총장에 부임한 최용덕은 6·25전쟁에서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작전을 총 지휘하며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⁹¹⁾ 1960년 8월 제6대 공군참모총장에 오른 김신은 당시 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군의 조직 체

86)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107쪽 ;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224쪽.

87) 『경향신문』, 1949년 7월 13일, 「수도경비사령부 초대사령관에 權駿 임명」;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288쪽. 권준(權駿, 1895~1959)은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열단과 중국군으로 활동한 인물로, 1944년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광복군 한구(漢口) 잠편지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1975, 545쪽).

88) 『경향신문』, 1949년 8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 거행」.

89)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111쪽.

90)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289~290쪽.

91) 『국방일보』, 2022년 3월 3일, 「평생 조국 하늘 지키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

계 확립에 노력을 기울였다.⁹²⁾ 이를 통해 공군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군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처럼 광복군 출신들은 초창기 국군의 주요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인 편제 변화 속에서도 연대장·여단장·사단장·군단장·참모총장 등 핵심 직책에 중용되었다. 지휘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부대 체계를 구축하고, 전투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초창기 국군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라. 6·25전쟁 참전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다.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6·25전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92명으로 파악된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교 88명, 부사관 2명, 병사 1명, 미상 1명이다. 군별로 분류해보면 육군 88명, 해군 1명, 공군 3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이 중 17명은 전쟁 중에 전사하기도 하였다.

광복군 출신들은 6·25전쟁 당시 주요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들은 소대장에서부터 군단장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홍일은 6·25전쟁 초기 시흥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되어 한강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국군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공세를 6일간 막아냈다.⁹³⁾ 이는 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에 막대한 차질을 주었으며, 이후 국군과 UN군이 연합

92) 김신, 『조국의 하(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218~219쪽.

93) 김홍일, 「나의 六·二五緒戰回顧 : 漢江防禦作戰에서 平壤國軍再編까지」, 『사상계』 12, 사상계사, 1964, 229~231쪽.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950년 7월 5일에는 시흥지구사령부가 제1군단으로 개편되자, 군단장에 올라 낙동강 방어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등 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⁹⁴⁾ 이는 중일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지휘했던 김홍일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영준은 선무·선전활동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는 정훈국 차장과 제3대 정훈감을 역임하며 전쟁 중에도 정훈교육 강화를 위해 힘썼다. 정훈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정훈대대를 창설하여 주요전선에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심리전 활동에 중점을 두어 북한군의 귀순·중용·대북한 주민 선무 등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하였고, UN군과 국군의 분투상·각종 호소문·표어·포스터 등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국군의 사기진작에 활용하였다.⁹⁵⁾

공군으로 참전한 김신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김신은 6·25전쟁 중 수많은 작전에 나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부대장으로서 직접 전투에 참전하여 귀감이 되었고, UN군들도 수행하기 힘든 작전을 실행하면서 한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1952년 1월 15일 수행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전에서 김신은 F-51기를 이끌고 철교는 물론 주변 대공포 진지와 병커·건물까지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다.⁹⁶⁾ 그 밖에 박시창은 제1군단 예민참모로서 흥남 철수작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⁹⁷⁾, 김소는 제1사단 제11연대 제1대대장으로 참전하여 북진의 선봉부대로 활약하였다.⁹⁸⁾

94)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246~249쪽.

95) 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159~170쪽.

96)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197~199쪽.

97)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185쪽.

98) 『동아일보』, 1985년 7월 18일, 「北進 당시 각 師團 指揮官」.

광복군 출신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광복군 출신 가운데 국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또는 실종된 자의 수는 모두 18명이다. 이 중 전사자는 김명탁·김영남·김일환·김현·고시복·박영진·박재화·이건국·이명·이무중·이진영·장철부·차성훈·차약도·최시화·허영일·황하규 등 17명이고⁹⁹⁾, 실종은 한성도 1명이다. 이무중은 제1사단 제11연대 제3대대장으로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¹⁰⁰⁾, 이진영은 1951년 4월 13일 전남 화순지구에서 전사하였다.¹⁰¹⁾ 차성훈은 육군 제8사단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1951년 12월 20일 영월 전투에서 산화했고¹⁰²⁾, 차약도는 서울지구 헌병대장으로 복무 중 6월 28일 동화백화점(현 신세계 백화점 본점) 부근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목숨을 잃었다.¹⁰³⁾ 이밖에 고시복은 1953년 4월 21일 서울지구병사구사령관에 취임하여 강원도지구 시찰 중 1953년 5월 7일 사망했으며¹⁰⁴⁾, 장철부는 8월 4일 경북 청송지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

-
- 99) 전사자 가운데 윤태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태현은 6·25전쟁 당시 연대장의 작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결처형 당했다. 이 과정에서 군법회의 회부 등 적법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태현은 1950년 7월 17일 즉결처분되어 같은 해 8월 20일자로 제적·파면되었다. 그러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윤태현의 즉결처분이 부당함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당시 훈령에 따르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노컷뉴스』, 2008년 11월 27일, 「고(故) 윤태현 육군소령 58년 만에 “죽음의 진실” 밝혀」).
- 100) 『중앙일보』, 1971년 5월 10일, 「민족의 증언」(173) ; 『동아일보』, 1985년 7월 18일, 「北進 당시 각 師團 指揮官」 ; 『독립유공자 공훈록』 5, 국가보훈처, 1988, 1015쪽.
- 101) 『독립유공자 공훈록』 5, 국가보훈처, 1988, 1041~1042쪽 ; 『경북동부신문』, 2015년 8월 27일, 「광복 70주년 특집, 이진영 열사, 독립운동 위해 중국 망명, 의열단 일원으로 남경·상해 등지에서 비밀첩보활동」.
- 102) 『독립유공자 공훈록』 5, 국가보훈처, 1988, 1087쪽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정보.
- 103)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150쪽.
- 104) 『경향신문』, 1953년 5월 10일, 「高兵事司舍官死去」.

던 중 중상을 입고 자결하였다.¹⁰⁵⁾ 한성도는 1950년 3월 30일 육군 중령으로 예편 후, 다시 복직이 결정되어 준비하던 중 실종되었다.¹⁰⁶⁾

이처럼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의 일원이 되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한 계기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국군 창설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다. 대체로 광복군·중국군·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경력을 중심으로 국군 창설에 참여하였고, 국군의 근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부류가 있다. 바로 광복군 출신들이었다.

1946년 6월 국내로 환국한 광복군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국군 창설의 주력이 되고자 하였다. 이들은 광복군이 국군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미군정이 주도하는 군대창설이나 군사기관에 참여하지 않았다.

105) 김선덕, 『마지막 기병대장 장철부』, 다물아사달, 2017, 176~178쪽.

106) 한명해, 『한국광복군경위대대장 한성도』, 2018, 101~103쪽.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는 두 가지이다.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과 이범석이 각각 통위부장과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까지 광복군 출신 중 국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자들의 수는 102명이다. 이는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복군 출신들은 육·해·공군에 모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해방 이전 각자의 군사경력이 영향을 끼쳤다.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곳은 육군으로, 특히 유동열과 이범석이 통위부장과 국방부장관에 부임했을 때 집중적으로 참여하였다. 둘째, 장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자 중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과거에 장교로서 복무한 경험을 가진 자들로, 해방 이후 국군에서도 그 경력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나이대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였다. 해방 당시 20~30대의 젊은 광복군들은 자신들의 광복군 경험을 살려 국군에 적극 참여했고, 김홍일·채원개·오광선 등의 고급군사경력자들은 중견간부로 임명되어 국군의 지휘체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넷째,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 중에는 독립군·중국군·광복군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의 전투역량 발전에 앞장섰다. 다섯째, 광복군 창설을 함께했던 인물들이 국군 태동과 함께하였다. 광복군 창설의 실질적인 준비 작업과 활동기반 개척에 힘썼던 이들의 경험과 역량은 초창기 국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참여하여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맡아 국방체

제를 정비하고, 국군의 통합과 조직 체계 마련에 힘썼다. 또한 초창기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의 교장을 맡아 국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사관학교가 국군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 주요 부대 지휘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6·25전쟁에도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하였다.

이처럼 국군의 창설과 성장의 중심에는 광복군 출신들의 참여와 활동이 있었다. 광복군 출신들은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국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육군·해군·공군에 참여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차관을 비롯한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 주요 부대 지휘관에 임명되어 국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을 조사·발굴하고, 연구·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군은 그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국방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대한민국국회 제1회 속기록』·『관보』(제3호)·
『독립유공자 공훈록』

2. 단행본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http://uci.or.kr//G901:A-0005979103@N2M>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II, 2002.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2368706@N2M>

_____,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7693126@N2M>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http://uci.or.kr//G901:A-0008479265@N2M>

김증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http://uci.or.kr//G901:A-0006353067@N2M>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1975.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351413@N2M>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http://uci.or.kr//G901:A-0008441218@N2M>

육군사관학교 제3기사 편찬위원회, 『화랑의 꿈 선구의 길 - 陸軍士官學校 第3期史』, 육군사관학교 제3기동기회, 2005.

<http://uci.or.kr//G901:A-0006100229@N2M>

陸士第8期史編纂委員會, 『老兵들의 證言 - 陸士八期史』, 陸軍士官學校 第八期生會, 1992.

<http://uci.or.kr//G901:A-0008378949@N2M>

이현희, 『韓國獨立運動證言資料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http://uci.or.kr//G901:A-0008354591@N2M>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47829251@N2M>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http://uci.or.kr//G901:A-0008602957@N2M>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4_1669@N2M

_____,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울, 2021.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http://uci.or.kr//G701:B-00047829649@N2M>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3. 논문

강창부·김기동·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 문화논총』 64, 2016.

<http://doi.org/10.15186/ikc.2016.12.64.219>

김종문,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8, 한국 근현대사학회, 2014.

<http://uci.or.kr//G701:A-00086682290@N2M>

김재승, 「愛國志士 閔泳玖 船長の 中國商船에서의 活躍」, 『해양평론』, 2006.

<http://uci.or.kr//G901:A-0002351392@N2M>

노영기, 「주한미군의 對韓 정세인식과 창군계획-사설군사단체에 대한 대응과 ‘뱀부계획’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 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UCI : G704-000827.2005.45..009

박민영, 「한국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http://doi.org/10.15799/kimos.2009..33.005>

백기인, 「건국 직후(1948~1950)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 『군사』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UCI : G704-001528.2002..46.006

_____,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http://doi.org/10.29212/mh.2008..68.51>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http://doi.org/10.29212/mh.2016..99.223>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 연구』 84, 2018.

<http://doi.org/10.29004/jkmch.2018.03.84.353>

(Abstract)

Activities and Roles of Those Who from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 the Korean Armed Forces

Kim, Min-ho

This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the activities and roles of soldiers in the national army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eir activities and contribution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with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from establishing the Korean Armed Forces. This study trie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ce Army and Korean Armed Forces.

First, all those from Independenc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were investigated.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hose who were trained while serving in the Independence Army and others who were identified with their liberal activities even though they were from different protesting groups. For this purpose, as much data as possible were investigated, like various types of newspapers, testament collections, memoirs, references, records of fallen soldiers of the National Cemetery, and status of burial. In addition, database information of reliabl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meritorious records, was reviewed to build as high reliability as possible. Those efforts have led to figuring out the approximate number of soldiers from the Independenc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Those from the Independence Army played a crucial role and mission in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the Korean Armed Forces. It is clear wh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iscover, and analyze those from the Independenc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This proves the identity and legitimacy of the Korean Armed Forces, which

identifies its roots as the Independence Army. This study suggests that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to support a national consensus and to establish the solid identity and legitimacy of the Korean Armed Forces.

Keywords : Korean Independence Army,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Armed Forces, Foundation of Army, Legitimacy of Korean Armed Forces